알아차림·로종… 해외불교 수행 韓서 배운다

중국 베트남 티베트 등서 현지수행, 한국서 알려져 비대면 지도 병행 공통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마음수행에 대한 대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틱낫한 스님의 마인드풀니스, 티베트 로종 수행 등 해외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알리는 자리가 속속 만들어 지고 있다.

자비명상법을 고안해 현대인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앞장서 온 마가 스님은 9월부터 플럼빌리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비명상 지도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첫째 주부터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은 분노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총 15주로 과정으로 △플럼빌리지 노래치유 명상 △자비명상 △마음카드, 나의 내면이 궁금해 △부처님의 대화 처방전 △ 일상에서의 명상 △마음의 구조와 원리 등을 내용으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는 팀티칭으로 마가 스님, 등명 스님, 범준 스님, 이운, 유승윤 교수가 함께 한다.

플럼빌리지에서의 수행은 알아차림 명상(mindfulness)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고통과 절망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승불교 수행이다.

9월 6일 마가 스님 특강으로 시작하는 강좌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 자비명상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원 인증교육 과정인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은 마가 스님이 직접 강의하며, 온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다.

겨울에는 1박2일간 집중명상도 병행된다. 그동안 500여 명이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각 사찰의 법회나 템플스테이, 학교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주 보산사에서 진행되는 수행 프로그램 모습. 미국 위앙종의 수행 프로그램을 한국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노래치유명상과 걷기명상 등 프랑스 플럼빌리지 명상을 통해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좀 더 따듯하게 명상에 몰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매 과정의 시작은 플럼빌리지에서 명상수행을 하신 범준 스님의 치유노래치유명상으로 시작하기에 수업에 대한 기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02)3216-5405

중국 선종 전통인 위앙종 수행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청주 보산사(주지 현안)는 미국 위앙종 참선 강좌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줌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위앙종은 중국 선종 중 하나로 현안 스님은 그 맥을 이은 영화 스님으로부터 사사 받았다. 현안 스님은 미국에서 '공원에서 참선' 모임을 시작해 7년간 미국에서 중국 전통의 선을 알려왔다. 줌 참여는 무료다. (010)9262-8441

8월 초부터 시민선방을 열고 로종 수행 등 티베트 불교 수행을 전하고 있는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도 8월 2일부터 줌 프로그램을 통한 명상 지도를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줌 명상법회서는 티베트 불교의 기도와 강의, 명상실습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광복절명상을 비롯한 특별 명상과 번개명상모임, 일요줌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용수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행지도의 확장으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해외 불교의 수행문화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며 "온라인 지도와 교자재를 활용해 사찰이라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에 장점이 있다. 앞으로 티베트 고승을 비롯한 명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셔 한국불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폐막…불자 승전보 '눈길'

한국 금메달 6개 중 5개 불자 손에서

안산·강채영·장민희·김제덕 등 양궁, 펜싱서 활약상 두드러져

8월 8일 막을 내린 2020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에 달한다.

불자선수들의 활약은 양궁과 펜싱 종목에서 두드러진다. 불자인 안산 양궁 선수는 혼성단체전, 여자단체전, 개인전 등 3관왕을 달성했다. 진천선수촌 법당을 자주찾는 강채영 선수와 장민희 선수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불자인 김제덕 남자 양궁 선수도 양궁 혼성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펜싱에서는 불자인 김정환 선수와 구본길 선수가 김준호, 오상욱과 함께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2연패에는 은퇴를 번복하고 올림픽에 출전한 맏형 김정환 선수의 역할이 컸다. 김정환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불자인 '에이스' 최인정 선수를 앞세운 여자 에페 단체팀은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역시 불자인 박상영 선수가 이끄는 펜싱 남자 에페 단체팀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연 선수가 이끄는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역전극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 등에서도 불자인 김소영-공희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등 선전했다. 이밖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역도 진윤성 선수, 사격 권은지 선수 등 차기 대회에서의 기대를 모으는 불자선수들이 많았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은 8월 24일 개막하는 도쿄패럴림픽의 폐막 이후 선전한 불자선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격려 무대를 꾸려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인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코로나19로 기원법회를 열지 못해 불서와 단주 등을 전달하고 영상법회 등을 하는 등 지원했다. 많은 지원을 못했지만 좋은 성과를 올려 다행이다"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대회였다고 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나란다축제 10년사 담은 백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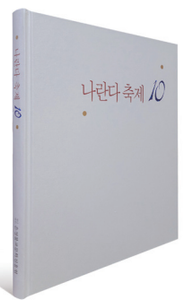
불교계 대표 청소년축제 조명 10년간 가출문제로 함께 제작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10여 년간 진행해 온 '나란다 축제'를 결산하는 10년史 백서 〈나란다축제 10〉을 발간했다.

〈나란다축제 10〉에서는 분야별 축제 현황과 함께 연도별 사진으로 지난 10년을 정리했다. 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나란다축제 기출문제도 한권으로 묶었다.

나란다 축제는 2009년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포교 진흥을 위해 '청소년 교리경시대회'를 기획하며 시작됐다.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개최 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군장병 교리경시대회에 이어 일반인,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축제로 진화했다. 이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4회째인 2012년부터 교리경시대회 명칭을 '나란다축제'로 바꾸게 됐다.



2014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하며, 종단사업으로 위상을 지니게 됐다.

현재 나란다축제는 'B-Boy 그랑프리대회' '전통 예술 경연대회' '우리말 독송대회' '붓다야 놀자' 등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 연인원 1만여 명이 동참하는 교계 대표 포교 축제로 자리매김 한 상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했으며 108 유튜브 제작 공모전·영화 감상문, 영화 감상평 공모전·캘리그라피 공모전·독후감 쓰기로 진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은 우리의 보배"라며 "축제가 인연이 되고 수행과 신행 활동의 깊이를 더해 궁극에는 불국토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발원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축제가 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02)515-9351

노덕현 기자

동남아 사찰 긴급지원 2차 물품 전달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미얀마·라오스 등 9곳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와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동남아시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 2차 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 9곳이며, 현재 캠페인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찰은 3개국가 총 13곳으로 증가했다.

해당 사찰 내 스님들과 고아 등 취약계층의 공양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찰의 규모와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됐다.

로터스월드는 날로 악화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송지희 기자

불교스카우트, 온택트 명상캠프 성료

8월 1일 줌 활용한 화상회의로 개최…78명 동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8월 1일 한국-대만 국제 온택트 어린이·청소년 명상대회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를 개최했다.

한국과 대만 청소년 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양국 청소년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열렸다.

명상캠프에서는 김나연 다르마명상심리상담센터 대표 진행으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자세' '감정 일으켜보기' '먹기 명상' '감사 명상' '만다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행 스님은 입재식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대만의 청소년들이 이후로도 연대감을 갖고 꾸준히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임명 허가 신청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비송합의

결 정

사 건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임시총무원장 임명 허가 신청)

신 청 인 이종윤 경주시 배리2길 34-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기현,곽동진

사건본인 대한불교원효종 경주시 배리2길 34-7
대표자 임시종정 이종윤

주 문

사건 본인의 임시종정 이종윤이 사건본인의 임시총무원장으로 김두환 (법명 일륜,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2번길 93 무량사)을 임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4.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강민기** 판사 **김재승**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

- 공 고 -

분한 신청·승려증 갱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스님께 알려 드립니다.

2019비합3003 (임시총무원장 임명허가 신청)이 2021년 8월 4일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선임 법원 결정에 따라,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 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대한불교원효종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2020년 폐업 하였기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종도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간 내에 갱신 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공고일로부터 ~ 8월 31까지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